

9/8(화) 시편 묵상 18

시편 81:8-16

본문 8절부터 다시 시작되는 선언은 이 시의 전반부(시 81:1-7)에서 다룬 출애굽과 시내산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종합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즈(Booij)라는 신학자는 본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어진 말씀

과거에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말씀을 이스라엘 즉 그의 백성들이 즐겨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오로지 인간만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한 외형과 역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와 인격적으로 관계(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에도 그 말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9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상,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믿는 것은 모두 신이 아니고 피조물(타락한 천사, 인간 등)이며 유일신은 야훼 하나님 오직 한 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10절하-11절). 11절에서 '내 백성이 나를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는 의지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는 자발적인 불순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당한 형벌은 하나님의 유기였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 그것을 섬기게 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유기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유다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만약 이스라엘이 오늘이라도 당장 죄를 떠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려고 걱정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본문의 14-16절의 말씀은 다시 순종의 길로 나오는 자들과 불순종의 자리에 머문 자들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속히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둘째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16절, “또 내가 기름진 밭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심판으로 버림받은 채 살아가는 그들의 시대가 계속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묵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시며 무엇보다도 그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주를 떠나 있다면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다시 죄를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결단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속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 10: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기복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제목

1.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다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아시아의 김기대<캄보디아>, 김기원<중국>, 김데이비드<오만>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